



우리가족 웰빙 소고기, 육우고기 먹는 날

— 육우자조금, '2017 육우데이 페스티벌' 성황리 종료 —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현주)는 지난 6월 9일, 육우데이를 맞아 서울시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2017 육우데이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우리 땅, 우리 소! 우리육우 먹는 날'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육우요리 시식회 및 체험마당, 육우 나눔행사, 라디오 공개방송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육우데이 페스티벌 사전마당에서는 육우 경매 이벤트가 진행돼 평소 육우고기를 접하기 어려웠던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었고, 상시 코너로 육우 등심구이 시식회를 비롯해 5가지



체험부스(육우버거, 육우쿠키, 육우주먹밥, 육우부채, 육우 저금통)가 운영됐다.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육우나눔’ 행사를 통해 육우 100kg을 성북푸드마켓에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편 소비자 접점 확대 및 육우 판매 활성화를 위해 6월 11일(일)까지 전국 11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육우고기 20% 할인행사가 진행됐다.

최현주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육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승호 본회 회장은 “육우는 판매장이 많지 않아 소비 저변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우리 육우가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육우고기 우수성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일 서포터즈로 참석한 배우 정애리씨는 “육우는 못 먹는 소라는 편견을 가진 분들을 위해 ‘복면가왕’이라는 TV 프로그램처럼 고기 자체로만 승부할 수 있도록 육우에게 복면을 씌워주고 싶다”고 말해 행사장에 자리한 육우농가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각종 체험행사와 시식회, 육우요리교실, 찾아가는 육우푸드트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설 계획이다. ㉞